

## 문채원, '구취 여배우' 루머에 '입냄새 측정기'까지 불었다

등록 2026.05.09 18:38:14



[서울=뉴시스] 문채원.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문채원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직접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문채원은 8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 '문채원 Moon chaewon'의 첫 영상을 통해 이른바 '노삼푸', '구취' 등 향간에 떠돌던 위생 관련 루머를 반박했다.

그는 특히 해당 영상에서 여배우로서는 공개적으로 시도하기 힘든, 두피 검사와 구취측정기로 입냄새까지 체크했다.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 모두 청결하다는 '0'이 나왔다.

예비 신랑의 신상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문채원은 예비 남편이 '연하의 피부과 의사'라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사칭 계정에 대해서도 팬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한편 문채원은 오는 6월 비연예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그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꾸어 갈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며 결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